

# 홀짝제 비교적 '순조'

## 첫날 공공기관 주차장 한산... 일부 업체 주차도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 시행 첫날인 15일 광주·전남지역 각급 기관에서는 사전 홍보 덕분에 홀짝제 운행이 비교적 순조롭게 이뤄졌고 주차장도 한산한 모습이었다.

광주시청의 경우 이날 운행이 금지된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시청 정문 앞에는 오전 7시20분부터 10여명의 직원들이 '홀수 낱은 홀수 차량, 짝수 낱은 짝수 차량 운행'이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나와 홀짝제 위반 차량을 단속했다. 광주시는 전날인 14일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5~6차례 휴대 폰 문자메시지와 전자메일을 통해 홀짝제 시행을 직원들에게 알렸다.

상당수 직원들은 출근 교통수단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했고, 집 방향이 같은 직원들끼리 카풀로 출근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그 덕분에 544편의 직원주차장 가운데 30%가량은 하루 종일 비어 있었다. 광주시 남구청과 광산경찰서 주차장에 20~

30% 가량 비어 한산했다. 전남도청 주차장(1천219면)도 평일이면 오전 10시를 전후해 승용차로 가득 차지만 이날은 20% 가량이 비어 있었다. 홀짝제 시행이 이미 알려진 탓에 주차장에서 노숙한 극소수 차량을 제외하고는 홀수번호 차량만 줄 비했으며 별다른 혼선은 없었다.

그러나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몰고 온 차량과 민원인들이 가져온 100여대의 짝수 번호 차량이 청사 주변에 주차돼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이밖에 각 자치단체와 산하기관, 시·도 교육청 등 대부분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대부분 홀짝제를 충실히 지켰다.

기관장 등 간부급 직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관용차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최중만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자전거를 타고 출근했으며, 박봉기 북부경찰서장도 택시를 이용했다. 광주 고검 고위 간부들과 광주 동구청 국

장들은 카풀을 이용했다. 반면 대체 차량을 이용하거나 짝수 번호 차량을 버젓이 타고 출근한 경우도 있었다. 유재문 광주남부경찰서장의 경우 두 대의 관용차가 모두 짝수번호인 탓에 짝수 차량을 타고 청사에 나왔다.

일부에선 불만도 터져나왔다. 근무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제도 시행에 대한 반발이다. 특히 출장이 잦은 부서나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출근해야 하는 직원들의 불만이 컸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은 차치하고라도 주변 택지개발이 덜 이뤄져 상대적으로 출퇴근 거리가 긴데다 출장도 많아 이를 반영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15일 시작되는 홀짝제 운영에서 제외됐던 사법부도 참여를 선언했다. 광주·지법은 오는 21일부터 차량 홀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후식·채희중·강필성 기자 who@

# 소방차도 에너지 절약 동참

고유가시대를 맞아 소방차도 에너지 절약에 나선다.

전남도 소방본부는 15일 소방훈련 방법을 바꾸고 화재 출동 차량을 필요한 숫자만큼으로 최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절약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소방장비 시동점수를 1일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매일 이뤄지는 각종 소방훈련에서도 차량의 시동을 걸지 않은 채 실시키로 했다. 또 2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용 소방헬기도 목적 외 사용을 통제키로 했으며, 대형화재에는 기본 15대 최소 6

대가 출동하도록 돼있는 소방차량 출동 시스템도 화재 초동진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감축·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청사 외등 적등 운영, 소방차량 적제품 최소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감도높은 에너지 절약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방본부는 이번 에너지 절약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연간 20억 원이 소요되는 에너지 비용 가운데 3억2천만 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형기 기자 redplane@

# 선풍기 과열 화재·질식사 잇따라

찜통더위가 연일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 선풍기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15일 새벽 5시20분께 광주시 서구 농성동에 사는 진모(51)씨의 주택 2층에 불이나 내부면적 80여㎡와 가재도구 등을 태운 뒤 20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선풍기를 켜둔 채 잠을 자는데, 갑자기 선풍기에

서 불이 났다"는 진씨의 진술로 미뤄 선풍기 과열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확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광주시 북구 중흥동 P아파트에 사는 윤모(28)씨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어머니 김모(55)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종형 기자 glee@kwangju.co.kr

# '안타까운 조선족 가정'

## 각계 온정 손길 이어져

아들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해 한국에 왔다가 숨진 50대 조선족 가정(본보 15일자 7면)에 대해 각계에서 온정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3일 패혈증으로 숨진 조선족 조모(51·중국 길림성)씨가 광주시독병원에서 이틀간 입원해 나온 병원 치료비 151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모금회 관계자는 "위대 사안이 긴급한데다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터라 내부 심의를 통해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광산구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는 조씨가 사망한 이후 영안실 사용료와 화장(火葬) 비용 20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조씨의 입원에 보증을 서줬던 이현영(50) 소장은 "병원에서 영안실 사용료 60만원을 깎아주는 등 많은 단체에서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조씨와 함께 한국에서 코리안 드림을 일구고 있는 누나와 동생 등 조씨의 가족들은 16일 오전 광주시 북구 영락공원에서 조씨의 시신을 화장할 계획이다. /강필성 기자 kps@



전교조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진보연대, 광주YMCA 등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전 광주시 누문동 광주제일고 광주학생운동기념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는 명백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위정직기자 jrwi@kwangju.co.kr

# 순천시 '독도는 우리 땅' 역사 수업

## 광주·전남 시민단체, 日 망동 규탄

15일 오후 1시25분, 순천공고 기

계과 1학년강반 교실에서는 특별한 수업이 진행됐다. 정경호(48) 교사는 독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영상 상영한 뒤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처음으로 표시했던 고지도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또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작성한 각종 자료에도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사실이 명기돼 있음을 동영상으로 보여주었다.

정 교사는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허구성을 체계적으로 짚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

각했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날 순천공고를 시작으로 17일 여천고, 목포 제일여고 등에서 독도 관련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역사왜곡을 바로 세우려는 역사 수업이 이뤄지는 등 광주·전남 시민단체의 반동이 거세지고 있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전남지부, 광주흥사단, 광주·전남진보연대, 광주YMCA 등은 이날 오전 광주시 북구 누문동 광주학생운동기념탑

# 광주·전남 독도 호적자들 화났다 日 규탄 적극 나서

일본 정부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명기 이후 광주·전남지역 독도 호적자들 중심으로 일본 규탄 움직임이 거세다.

온라인상에서도 '우리 땅 독도, 우리가 지키기'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가 하면 이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독도 망동'을 규탄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5년 3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독도항우회 광주·전남모임'(cafe.daum.net/tokdogi)를 개설·운영중인 윤현근(41·광주 남구 주월동)씨는 온라인을

통해 본격적인 독도 지키기에 나선 계획이다. 윤씨는 지난 2000년 6월 아내(33)와 딸(10) 등 가족 3명의 호적을 독도로 옮긴 뒤 이후 태어난 셋째(5)와 막내(3)도 모두 독도로 호적을 옮겼다. 카페 개설 이후 회원은 현재 20여명으로 늘었고, 윤씨처럼 독도로 호적을 옮긴 사람도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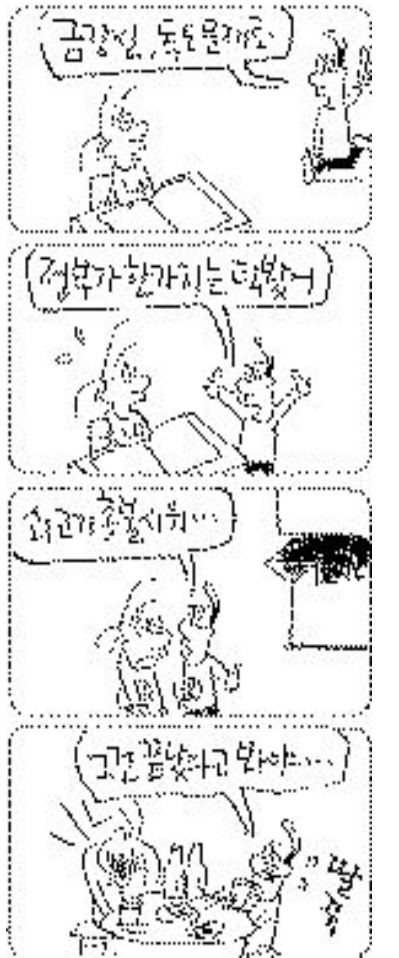
윤씨는 "카페 회원·네티즌들과 함께 독도를 지킬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 3월 독도로 호적을 옮긴 이승배(49·건물관리인)씨는 "독

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모임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8년 전 아내와 네 딸 등 전 가족들의 호적을 독도로 옮긴 신재복(46·한진 진도지점)씨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한일관계를 재설정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독도 호적자는 현재 2천53명에 이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지난 2000년 행정구역 조정으로 '독도리'가 신설되면서 호적을 옮겼다. /인현주 기자 ahj@

전교조 등은 일본 해외연수나 수학여행 등을 자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일본 교원단체에 공동대응을 요구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광주시민단체총연합회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일본이 발표한 영유권 주장을 침탈로 간주하고 단호히 대처하라"고 요구했다. /정성필기자 camus@ /동부취재본부=지광원기자 light64@

# 나원침 (7557) 김장두



다 좋은 건국·창업자금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자막 및 상담관행

합격할 줄 모르고 검증고시 또 합격

○...지나해 치른 검증고시에서 불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던 10대가 각각의 노력끝에 올 검증고시에 합격한 뒤에야 지난해에도 사실은 합격했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고교 중퇴로 지난해 고졸 검증고시를 치렀던 S(18)양은 학원 상담원으로부터 '불합격'이라는 말을 듣고 1년간 다시 공부한 끝에 올해 검증고시를 통과했다는 것.

○...그러나 확인 결과 S양은 지난해 점수가 570점대로 합격기준인 480점을 충분히 넘긴 것으로 나타나 "학원이 합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아 이렇게 됐다"며 분개.

○...이에 대해 해당 학원 측은 "불합격을 통보한 상담원이 없다"고 말했고, 시교육청 관계자는 "S양이 교육청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전언.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아직도 고가의 온돌침대를 목돈으로 구입하십니까? 할부식 판매서비스 - 월별금 50,000원~60,000원대(무이자 36회 까지) 보상판매 실시 온돌침대를 구입 시 현재 사용하는 침대(메트릭스)를 보상판매

ANYCHE CHAIR 기술과 정제를 바탕으로한 최자 전문 생산업체 - 무인자시제